



“신앙과 사랑을 실천에 옮기자” 라는 웨슬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강조는 현재 연합감리교회로 통합된 감리교 전통의 특징입니다. (교리와 장정, 문단 101)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는 결단의 실천신학에 의해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전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 이러한 결단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합니다: 서로 간의 연합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연합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실제적인 자선의 행위로 세상을 섬길 때,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리시키고, 흩어지게 하고, 평가절하하게 하는 인간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다는 표시로서의 연합 안에 있는 풍부한 다양성을 소중하게 경험합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결정은 팬데믹의 심각성과 우리 교단의 풍부하고 다양한 미래를 심의하기 위해 함께 대면하여 모이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20년도에 예정되었던 교단총회를 2022년도까지 연기하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렇다고 이번 총회의 연기가 연합감리교회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사역”에 방해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계 각처에 나뉘어져 있는 연합감리교 지체가 참여하는 이 모임이 지연됨에 따라, 일부는 교단 내 분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요일에 웨슬리언약협회(WCA), 고백운동(Confessing Movement) 및 기타 그룹의 회원들은 연합감리교회를 떠나, 글로벌 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라는 새로운 교단의 출범 계획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UMCNext의 지도자들로서 우리는 우리 교단내 여러 그룹이 오랫동안 서로 다른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교단내 여러 그룹이 새로운 형태의 감리교회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자는 법안을 지난 2020년 총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UMCNext는 (결별을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에 관한 협상에도 참여했습니다. UMCNext는 계획된 2022년 총회가 적절하게 개최 될 때까지 의정서와 발의된 입법안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며 감독들에게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 고발을 잠정적으로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네소타 미네폴리스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를 통해 세계 각 곳에서 모이는 대의원들이 이 중요한 법안과 관련하여 공정한 토론과 심의와 투표에 참여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세계를 아우르는 교회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때 보다 우리의 연합이 중요하다고 느끼며, 함께 일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공동 사명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일”을 위해 최선을 하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맞을 내리고 전통, 경험, 및 이성의 도움을 얻는 가운데, 개인적 차원의 경건과 사회적 성결의 삶을 사는 웨슬리의 기독교 비전을 따르기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신실히 함께 동참하고 개인적이며 교단적인 차원의 성화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